

News

금감원 "은행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 극복위한 한시적 조치"

세계일보

금융감독원이 8일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이어 "배당 축소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은행권과 주주들의 반발에 법적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내놨다.

은행 중개 없이도 자금 이체 가능...CBDC로 금융 · 상거래 빅뱅 예고

서울경제

한은의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 · 개정 방향' 외부연구 용역 결과: 현금과 교환이 가능한 CBDC를 한은이 직접 개입해 이용자들에게 발행 가능
또한, CBDC 보유자는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자금 이체가 가능해 CBDC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금융 산업과 전자 상거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

증선위, 라임 펀드 판매 3개 증권사 과태료 부과 의결... 금융위에서 제재 확정

서울경제

증선위는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세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
다음 절차인 금융위 상정이 확정되더라도 이달 중에는 심의되지 않고, 다음 차례인 3월 3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재정 확대 부담에...국고채 30년물 금리 연 2% 육박

서울경제

국내외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 확대 압력까지 가중되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가 오름세 이어가
국고채 10년물은 지난 5일 대비 3.1bp 오른 연 1.822%에, 20년물은 4.5bp 상승한 연 1.980%, 30년물은 4.3bp 오른 연 1.985%에 종료. 2019.3.20 이후 최고치

'해외펀드 환차익' 소송 승소...19개 증권사, 950억 돌려받아

SBS Biz

국내 증권사 19곳이 소송에 나선지 9년여 만에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1천억 원대 부당과세 소송에서 950억 원을 최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돼
2007년~2009년 정부로부터 해외 주식형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부여 받고도 환차익 배당소득세가 부당과세라며 소송을 진행, 8년 후 950억 돌려 받아

은행, 보험은 1%인데...연금서 50% 수익낸 증권사

매일경제

천덕꾸러기 `로 여겨지던 연금계좌에서 지난해 `50% 수익률`이라는 놀라운 성적표가 나왔다.
작년부터 은행,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연금 계좌가 대거 이동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투자에 눈을 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자산운용이익률, 車 · 실손 손해율 개선에 호실적

뉴데일리경제

지난해 주가 상승에 힘입어 생명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이익률 개선,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일부 개선되며 호실적 거둬
하지만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령'이 2금융권까지 확대되고 보험업권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자금출연 압박에 우려 나타내

동양생명, 주당 220원 현금배당 결정

헤럴드경제

동양생명보험은 보통주 1주당 220원의 현금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